

제 1 교시

국어 영역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한데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문제풀이 - 1문단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결정론적 세계관의 정의가 나타나므로 표시해 두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어떠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데, 일단은 모든 문제를 살펴보자.

1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앞서 예상했듯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주제를 묻는 문제이므로 글을 다 읽은 후 푸는 것이 나올 것이다.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각각 나타나는 문단을 읽은 후 판단하면 될 것이다.

SpokesAI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에피쿠로스에 대한 비판을 묻는 것이므로, 에피쿠로스 사상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것에 반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내용 일치 문제와 비슷한 성격이므로 매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ㄹ에서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에피쿠로스가 그 자연재해를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면 ㄹ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홀름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보기>문제이나 에피쿠로스 사상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로, 21번과 비슷하게 내용 일치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보기> 먼저 읽고 선지에서의 <보기>에 대한 내용을 판단한 후, 매 문단을 읽을 때마다 봐줄 수 있을 것이다. <보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맞아 보이므로, 일단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

2문단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에피쿠로스의 사상 중 이신론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오고, 그가 생각하는 신의 상태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살펴보자.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은 신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며,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반대 의견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또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존재 이유, 존재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으므로 1, 2, 3, 5번 선지가 모두 틀린 선지이다.

㉠에서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으므로,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4번 선지의 내용은 ㉠에 대해서는 옳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인간의 믿음과 다른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은 4번.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 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신이 분노,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에피쿠로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세계는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간의 행복도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했으므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세계 및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ㄱ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같은 인간 세계의 사건 또한 신이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ㄹ은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올바르게 담고 있고,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점을 제기했으므로 올바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불사하는 존재이며,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존재하고, 행복은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했다. 따라서 1, 3, 4, 5번 선지에서 제시된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대한 말들은 모두 옳고, <보기>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1, 3, 4번 선지의 내용은 옳다. 그러나 5번 선지에서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는 부분이,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답은 5번.

3문단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를 살펴보자.

21. 읽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문단에서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에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ㄷ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에 대해 ㄹ과 비슷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4문단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3문단의 내용과 4문단의 내용 모두가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문제를 살펴보자.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에서 우주의 우연성을 제시하며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 단초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어찌 보면 1번 선지의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3문단의 내용을 고려해도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있지 않으며, 인간의 존재 이유 및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도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2, 3, 5번 선지는 ㉡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므로 신의 관여는 전혀 없고,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을 통해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번 선지의 ㉡에 대한 내용도 옳다.

이미 답은 4번이지만 ㉠만 보고 판단을 못 했을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에 대해서도 선지 판단을 해 주면 될 것이다.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며, 신의 관여는 없고 이러한 생각을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고 했다. ㄴ은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그대로 담으면서 다만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이 결국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느냐는, 4문단 내용의 전체적인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의 생각에 대해 틀린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 논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옳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틀린 비판이라고 볼 이유가 딱히 없다.)

따라서 답은 5번.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한데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

에피쿠로스는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것이 맞으므로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5번.

5문단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㉞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잘 봐두자. 마지막 문단이므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19. 밑줄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었다기보다는 인간과 신의 관계, 영혼과 육체의 관계 등을 다루었으므로 1번 선지는 옳지 않다.  
또한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이 없고, 논쟁 또한 나온 적이 없으므로 3, 4번 선지도 옳지 않다.  
그리고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마지막 문장에서만 간략하게 언급될 뿐 자세히 다루지지 않았으므로 5번 선지도 옳지 않다.  
따라서 답은 2번.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5문단에 따르면 ㉣은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5문단의 두 번째 문장부터의 내용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4번 선지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답은 확실히 4번.

SpokesAI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문제풀이 - 1문단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정책 금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비례관계'가 나타난다. 정책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 금리, 대출, 신용 공급, 물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에 표시를 해 두고 모든 문제를 살펴보자.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내용일치 문제이므로 살펴봐야 하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내용이 금융 위기 이전이고 어떠한 내용이 금융 위기 이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물론 첫 문단은 금융 위기 이전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풀이의 일관성을 위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 언급이 된 이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과 ㉡이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 살펴보면 될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 살펴보는 것이 맞으나, 30번도 <보기> 문제이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해당 문제의 <보기>는 짧기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살펴봐도 좋을 것이다.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두 정책이 모두 언급된 내용을 보고 난 이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 살펴볼 것이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가 나온 문단을 읽은 후 해결하면 된다.

2문단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금융감독 정책 중 미시 건전성 정책의 전제, 활용하는 수단, 수단의 대표적 예시 등을 설명하였다. 문제를 살펴보자.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1번 선지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이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힘들다.  
3, 5번 선지의 경우 ㉠에 대한 설명은 옳다. 4번 선지의 경우 ㉠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에 대해서는 옳다.

3문단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언급되었으므로 전통적인 경제학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임이 명확해졌다. 또한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하고, ㉠ 또한 언급되었으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살펴볼 도록 하자.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문단에서 ‘금융이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의 부분이 금융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1번 선지는 옳지 않다.  
2문단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으므로 2번 선지도 옳지 않다.

금융 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3번 선지도 옳지 않다.

이 문단의 중간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 정책이 경제 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했으므로 4번 선지는 옳다. 따라서 답은 4번.

자산 가격 변동과 경기 변동의 관계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5번 선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통화 정책이다. 금융감독 정책과는 구분되므로, 1번 선지는 옳다. 아직 ㉡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에 나머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과 ㉡, 즉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이 모두 언급되었으나 아직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에 29번 문제를 풀기에도 이르다. 다음 문단을 살펴보자.

4문단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전제, 정의,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문제를 살펴보자.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으므로, 2번 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도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사용하므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선지는 3번 선지에서 판단 근거에 의해 옳은 선지이다.

㉡에 대한 설명에서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는 말은 나왔지만,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5번 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사실은 이미 답이 3번임이 밝혀졌으므로, 아직 5번 선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 |

아직 완충자본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기에 A, C는 판단할 수 없지만, D의 뒤쪽에서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에서 D가 미시, B가 거시임을 알 수 있다.

5문단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둘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경기 순응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마지막 문단이므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27.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기 순응성에 대한 설명에서,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기가 과열된다고 했으므로,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번 선지는 틀렸고, 답은 확실히 4번이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필요하다고 나왔으므로 2번 선지는 옳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과 완충자본을 이용한 제도이므로 5번 선지도 옳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3번.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

경기가 A일 때,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A를 결정해 준 후 C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 경기가 어떠한 경우에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다. 물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A를 불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은 않다.

필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리는 미시 건전성 정책이 경기 상황에 따라 어떠한지는 잘 모르지만, 거시 건전성 정책, 특히 완충자본에 대해서는 5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A와 C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1, 2, 3번 중에서 A와 C의 관계가 옳은 것은 1번뿐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만약 1, 2, 3번의 A의 선택지가 '호황' 2개에 '불황' 1개였다면, 필자도 A와 C의 호응이 맞을 2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해결했겠지만, 평가원은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선지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예시로 들다' 와 같이 '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답은 2번이다.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1문단에 나와 있다. 1문단에서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경기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례관계’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보기>의 상황을 조금 더 수월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신용 공급이 축소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진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용 공급이 확대되면 물가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과도하게 물가가 증가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1번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현실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비대칭적이라고 했다. 소비 심리 위축 또는 투자 대상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나와있으므로 2번 선지도 옳은 선지이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 순응성은 경기 호황에서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경기 과열을 유도하고, 경기 불황에서는 그 반대라고 했으므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여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성질인데, 경기 상황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여 경기 불황

에서도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 상황과는 맞지 않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답은 3번이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즉 큰 범주에서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다. 만약 이러한 근거가 와닿지 않는다면, 세모 표시를 한 후 나머지 선지들을 판단하여 3번 선지가 답임을 골라내면 된다.

4번 선지의 경우 <보기>에서 제시된 통화 정책이 정책 금리 조정 뿐이므로, 당연히 <보기>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옳다.

통화 정책이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보기>에 나와있으므로 5번 선지도 옳다.

따라서 답은 확실히 3번.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3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올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 존재(存在)하고
- ③ ㉢ : 보유(保有)하고
- ④ ㉣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 생성(生成)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풀이 - 1문단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루며, 유사성은 그 조건이 될 수 없고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고 하고 있다. 우선 모든 문제를 살펴보자.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므로 글을 다 읽은 후에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용일치 문제이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바닷물은 개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유기적 상호작용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으므로 1, 2번 선지는 모두 옳다. 다만 2번은 확신이 들지 않으므로 세모 표시를 하자.

3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 살펴보면 될 것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 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올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살펴보면 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참조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보기> 문제이므로 글을 다 읽은 후에 살펴보면 될 것이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성(構成)한다고 ○
- ② ㉡ : 존재(存在)하고
- ③ ㉢ : 보유(保有)하고
- ④ ㉣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 생성(生成)된다

㉠~㉣가 언급된 문단을 읽은 후 각각을 판단해주면 된다. ㉠의 경우 바꿔 써도 의미가 같으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2문단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이한 시기의 대상을 같은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으로서 인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문단의 내용은 <보기> 문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다른 문단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른 문제들을 푸는 데 바탕이 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풀 수 있는 선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3문단으로 넘어가면 된다.

3문단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인 세포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세포를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분류해서 각각의 특징을, 특히 진핵세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를 살펴보자.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성(構成)한다고 ○
- ② ㉡ : 존재(存在)하고 ○
- ③ ㉢ : 보유(保有)하고 ○
- ④ ㉣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 생성(生成)된다

㉡, ㉢ 도 바꿔 썼을 때 의미가 동일하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3문단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없었다. 2문단과 같이 <보기> 문제에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문단의 내용으로 다른 문제들을 판단할 때 바탕이 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4문단으로 넘어가면 된다.

4문단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상당히 긴 문단이므로 보다 침착하게 필요한 정보들에 표시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공생발생설(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처음엔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 그리고 나중에 부각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를 살펴보자.

3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3문단에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다고 했고, 미토콘드리아도 그 중 하나라고 했으므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외부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4문단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후에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외부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4번 선지는 옳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은 선지가 될 것이다. 일단 세모 표시를 해 두자.

39. 밑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 바로 뒷 내용에 따르면 이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및 대략적인 구조,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의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였고,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1, 2, 3, 4번 선지는 옳지 않다. 1, 3, 4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이미 근거가 나와 있으며, 2번 선지의 경우 오히려 공생발생설이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나중에 공생발생설이 후에 다시 주목된 이유가 4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세포핵의 DNA와 다르다는 것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는 뜻이 되고, 3문단에 따르면 DNA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것이므로 5번 선지가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어차피 다른 선지들이 모두 틀렸으므로 5번 선지가 답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 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아직 공생발생설이 주목받은 이유로 세포핵의 DNA와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다르다는 것,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언급되었고, 이분 분열, 수송 단백질, 카디오리핀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판단하기는 이르나, 진핵 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ㄴ이 틀렸다는 것만 판단할 수 있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 존재(存在)하고 ○  
 ③ ㉢ : 보유(保有)하고 ○  
 ④ ㉣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 생성(生成)된다

4번 선지는 의미상 오히려 ㉠ 뒤쪽의 '부각되었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답은 4번.

5문단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진핵생물은 고세균으로부터 탄생했다고도 언급했다. 각각의 근거를 눈여겨본 후 문제를 살펴보자.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 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는 옳다. 5번 선지의 경우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논란이 되지 않은 까닭은 두 가지 뜻 중 어떠한 뜻으로 해석해도 옳은 선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고세균-원생미토콘드리아 간 인과성과 고세균-진핵세포 간 인과성을 비교하거나, 고세균-진핵세포 간 인과성과 원생미토콘드리아-진핵세포 간 인과성을 비교하면 되는데, 앞서 문제를 푸는 데 쓰이지 않았던 2문단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고세균으로부터 진핵생물이 탄생했으므로, 진핵 세포는 고세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판단하기 쉬워진다. 2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면 5번 선지를 어떠한 뜻으로 해석했든 고세균-진핵세포 간 인과성이 더 강하므로 5번 선지는 옳다. 마지막 문단에 4번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번 선지가 답이 될 것이고 2번 선지는 합리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
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문단에 나와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였다는 근
거를 참고하면,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과 진핵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을 가진다는 것, 카디오리
핀이 존재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ㄱ은 옳고, ㄷ은 '진핵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수송
단백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옳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한 ㄹ이 옳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고 충분히 합리화 가능하다.
따라서 답은 2번.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 존재(存在)하고 ○
③ ㉢ : 보유(保有)하고 ○
④ ㉣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 생성(生成)된다 ○

㉢ 또한 바꿔 써도 뜻이 같으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답은 확실히 4번.

6문단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
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
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
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
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공생 관계와 세포 소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 문단이므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공생발생설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한 적이 없고,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도 서술된 적 없다.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적도 없고, 세포
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도 설명된 적이 없으며, 세포가 하
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도 서술된 적이 없으므로 1, 2, 4, 5
번 선지는 옳지 않다.

개체성의 조건을 1문단 및 2문단에서 제시했고, 세포 소기관
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맞으므
로 답은 3번이다.

3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대사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세포핵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4번 선지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므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며, 답은 4번이다. 그렇다면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일 것이고, 그 근거는 1문단의 내용으로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

복어와 체내 미생물은 애초에 서로 떨어져도 죽지 않으므로 공생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다.  
아메바와 병원성 박테리아는 박테리아가 죽으면 아메바도 죽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6문단에서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므로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어도 공생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문단에 언급된 세포 소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병원성 박테리아의 경우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한다고 했으므로, 세포 소기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메바와 병원성 박테리아도 공생 관계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 5번 선지는 옳다.

또한 <보기>에서의 각각의 두 생물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1문단에서의 개체성의 조건을 만족해 같은 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6문단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참고하면 세포 소기관이 된 생물은 개체성을 잃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번 선지는 옳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6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4번 선지도 옳다.

SpokesAI